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5호 범주사팔상전



팔상전, 달빛

이길원

추녀에 부딪친 달빛이 주루룩 미끄러진다
달빛도 한기를 먹었다
수천 년 전부터 갈라져 싸우는 좁은 땅
화두가 통일인 게 서러워
꺼억꺼억 울고 있다

인도로 건너 가 경전 하나 달랑 들고
나귀 타고 돌아온 의상화상도
삼국통일 기원하며 범주사 지었다니
부처님도 통일이 소원이야

아름다운 땅. 어찌 그리 탐내는지
쳐들어온 왜구 물리치던 벽안대사
범주사 소실되지 소나무 배어
석가모니 생애 8단계로 나누어 그리며
진리가 하나이듯 속이 하나로 뽕 풀린 건물에
날개 편 공작처럼 지붕만 5개 없으니
팔상전

주문인지 기도인지 웅얼거리는 할머니
소망 가득 머리에 이고 들고 도는데
지수도 들고
달빛도 들고
석가모니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이길원 시인은... 충북 청주 출생. 1990년 <시문학>으로 등단. 시집 <어느 아침 나무가 되어>, <해리리 시편> 등

“한국불교 성패, 사회적 실천이 열쇠”

이도흠 교수, 통합종단 50주년 2차 세미나서 강조

“이제 조계종은 사회적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불교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매진해야 한다.”

통합종단 50년을 맞은 조계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2차 세미나’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조계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홍사성 불교평론주간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종단의 사회적 상황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50년의 세월동안 세력은 이미 기독교에 밀려났고, 대중들은 불교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이 교수는 “일부 외부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승단의 범계 행위, 주도적 담론 창출 실패, 교육·포교의 전근대성, 사회적 실천 부족 등 내부적 요인이 더 큰 문제”라며 “여러 요인 가운데 기독교가 불교를 압도하게 된 원인은 사회적 실천을 등안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가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과제로 환경과 생명, 갈등의 해결, 복지와 상생을 꼽았다. 세 가지 분야에서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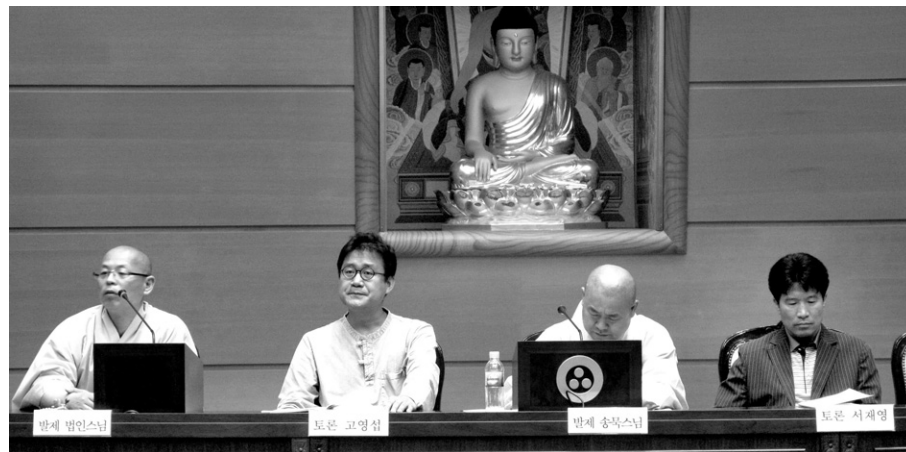
불살생의 생명관, 연기적 생태론을 통해 환경과 생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으며, 화쟁·연기론에 입각해 갈등을 불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와

중생의 아픔, 연기론적 공감
전담기구 설립 등 추진 제언
“승가교육, 대학 같다” 비판
‘통합종단 50년’ 이의 제기도

상생에 대해서는 공감의 연대를 통한 불교적 삶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와 중생,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둘이 아닌 하나고, 중생이 곧 부처”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를 맺고 실천하는 자리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밝혔다.

사회적 실천을 위한 현실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실천에 대한 중의를 모아 이를 전담하고 추진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구제책을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역기능과 모순을 극복한 대안의 공동체 모델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의 대안이 불교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계종이 걸어온 5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가 됐다.

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승가교육, 포교에 대한 현황과 전망, 비판들도 쏟아졌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환경이 통일되지 못했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2013년 말부터 기본교육기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 스님은 승가교육 개선 방향으로 △ 기본교육 교과과정 전면 개편 △ 기본교재 한글화 및 교수법 현대화 △ 인문학적 소양과 창조적 응용능력 배양 등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현재 포교원 정책을 비판했다. 일련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승가교육은 일반교육과 달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승가교육은 세간의 대학 커

리큘럼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종단 50주년의 개념에 대한 비판도 제시됐다. 토론자인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단 밖에서는 한국불교 전체의 발전을 논하던 사람도 종단으로 들어오면 종단에 국한돼 사고하기 시작한다”며 “그럼에도 굳이 통합종단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통합종단은 비구와 대처가 하나로 모여 종단을 이뤘다는 뜻이지만, 이미 70년대 통합종단의 개념이 사라졌다. ‘통합종단 50년’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장 현웅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통합종단 50주년 맞아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50주년이라는 용어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근현대적 종단 출범 50주년이 맞는 용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신승일 기자 mt0179@hyunbul.com

“국민의 죽비”를 항상 되새기겠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자승 스님 예방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7월 18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문 고문은 먼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진산사에서 뵙고 처음 뵙는다”며 협정했으며, 자승 스님은 “대선 출마 선언을 잘 봤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영결식 당시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고문은 최근 사찰들을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문 고문은 “대선 출마 선언 후 대응사에 가니 너무 환대해줘 감사했다. 늘 불교계에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며 “어제에는 전주 잠봉은우리절에 방문했는데 ‘국민죽비’라고 쓰여진 선물을 주셨다. 항상 국민의 경책들을 옆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이 7월 18일 자승 스님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자승 스님과의 예방을 마친 문 고문은 자승과채신결사본부장 도범 스님을 찾아 환담을 이어갔다. 이날 자리에서 도범 스님은 “나라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선전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승일 기자

선해 스님 주지 추천 규탄

해인사정상화추진위 성명 발표... 총결기 촉구

해인사가 ‘주지 부적격’ 의견을 받은 선각 스님 대신 선해 스님으로 주지 품신을 교체한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인사정상화추진위원회(공동의장 원학, 여연, 이하 정상화추진위)는 7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해 스님의 주지 추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승일 기자

정상화추진위는 성명서에서 “몇몇 소임자 스님과 선각, 선해 스님이 있는 자리에서 방장 법전 스님이 통보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일 뿐 누가 봐도 선각 스님이 지명한 인선”이라며 “해인사가 선각 스님의 사실사이며, 선각 스님은 창건주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계종교육원

8월 23~24일 교수법 연찬회

학인 스님들에 대한 교육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교육원(원장 현웅)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목동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교수법 연찬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연찬회는 승가대학, 대학원 교육 교역자 스님들과 교수 아사리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 해결, 효과적 강의 방법 홍보 등이 논의된다.

신승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Content. Rows include Basic Course (3 semesters), Intermediate Course (3 semesters), Practice Class (1 year), Practical Course (1 year), and Special Practice (1 year).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8월 16일까지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탐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각자님 환영합니다.

일월조계종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종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종비 없습니다.
■ 출가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곡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

